

‘파죽지세’ 9연승…NC, ‘포스트시즌 최다 연승’ 넘본다



지난 10월 3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NC 다이노스와 kt 위즈의 2차전 경기, 3대 2로 승리한 NC 강인권 감독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해태 타이거즈 가을야구 최다 연승과 타이

오늘 KT와 PO 3차전…승리시 KS 진출 확정

패배를 잊은 NC 다이노스가 KBO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3차전에서 포스트시즌(PS) 최다 연승 신기록에 도전한다.

NC는 지난달 3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쏘 KBO PO' 2차전에서 KT 위즈를 3-2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NC는 PS 연승 행진을 '9'로 늘리며 해태 타이거즈가 1987~1988년에 걸쳐 달성한 가을야구 최다 연승과 타이를 이뤘다. 해태는 1987년 플레이오프 4차전부터 1988년 한국시리즈 3차전까지 9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2020년 정규시즌 우승을 일구며 한국시리즈(KS·7전4승제)에 직행한 NC는 3차전까지 두산 베어스에 시리즈 전적 1승 2패로 밀렸다.

하지만 4~6차전을 모두 이겨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PS에서 NC는 6연승을 질주하며 무시무시한 기세를 과시하고 있다. 올해 정규시즌 4위로 5위 두산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가을야구를 시작한 NC는 PO 2차전까지 6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경기도 승리를 놓치지 않았다. 두산을 제압한 후 전력의 열세를 딛고 3위 SSG 랜더스에 3연승을 거뒀고 2위 KT와의 2연전도 싹쓸이했다.

PO 2차전 종료 후 강인권 NC 감독은 "PS 최다 연승 타이 기록에 의미를 두진 않는다. 한 경기, 한 경기 하다 보니 9연승까지 왔다. 기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C는 오는 2일 창원 NC파크에서 펼쳐지는

PO 3차전에서 KS 진출 확정과 함께 PS 최다 연승 신기록 수립을 노린다. 2020년 이후 3년 만에 KS 무대를 밟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선발 마운드는 외국인 투수 테너 킬리가 지킨다. 지난 8월 대체 외국인 선수로 NC에 합류한 테너는 11경기에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2.92로 활약했다.

비록 PS 2경기에서 6이닝 12피안타(2피홈런) 6볼넷 10실점으로 부진했지만, 정규시즌 KT전에서 호투를 펼친 기억이 있다. 6회까지 삼진 8개를 숙여냈고 2점만 허용했다.

물이 오른 NC의 방망이는 또다시 KT 마운드를 겨냥한다. PS 6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생산하는 등 대포 8발을 터뜨렸다.

PO 2차전에서 결승 홈런을 쏘아 올린 박건우가 공격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 중이고, 테이블세터(1·2번 타자)를 구축한 손아섭과 박민우가 각각 타율 0.333, 0.346 맹타를 휘둘렀다. 이번 가을야구에서 9타점을 쓸어 담은 서호철은 하위 타선의 공격을 지휘하고 있다.

NC-KT의 PO 바라본 LG 반응은… “긴장감 느껴져”

염경엽 감독 “PS 엄연히 다른 경기” 켈리 “PO 모든 경기 봤다…흥미진진”

정규시즌 1위로 한국시리즈(KS·7전4승제)에 직행한 LG 트윈스는 맞대결 상대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선수단은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흥미롭게 플레이오프(PO·5전3승제)를 지켜보고 있다.

LG는 1일 잠실구장에서 국군체육부대(상무)와 연습경기를 갖는다.

앞서 자체 청백전 3경기와 연습경기 1경기를 뛰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이날 경기와 오는 4일 마지막 자체 청백전을 소화한 뒤 7일 홈에서 열리는 KS 1차전에 임한다.

LG의 KS 상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PO 1, 2차전을 모두 승리한 NC가 유력하다.

정규시즌 4위로 가을야구 무대를 밟은 NC는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PO 2차전까지 6경

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경기도 패하지 않았다. 3년 만에 KS 진출까지 PO 1승만을 남겨두고 있다.

반면 PO 2연패로 벼랑 끝에 몰린 KT 위즈는 3~5차전을 모두 이겨야 KS 진출이 가능하다.

연습경기를 앞두고 만난 염경엽 LG 감독은 NC와 KT의 PO에 대해 “NC가 1~3번 타자(손아섭·박민우·박건우)가 좋아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뺀 나머지 경기에서 선취점을 뽑았다. 1~3번 타자의 활약이 포스트시즌을 좌지우지 하기도 한다”며 “포스트시즌은 길게 보고 가는 정규시즌과 엄연히 다른 경기다. 개인 기록은 의미 없고 KS 4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G는 정규시즌에서 KT를 상대로 10승 6패로 우세했지만, NC와의 상대 전적에서는 6승 10패로 밀렸다.

정규시즌 맞대결을 떠올린 염 감독은 “편한

상대는 없다. NC와의 상대 전적이 안 좋았지만, 우리가 못했다기보다 꼬인 경기가 많았다. KT는 좋은 선발 투수들이 있어서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디그아웃에서 만난 LG 선발 투수 임찬규는 “NC와 KT 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긴장감이 느껴졌다”며 “기본적인 플레이와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투수는 좋은 공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데 수비, 견제 등 여러 가지 요소들도 다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짚었다.

“PO 모든 경기를 봤다”고 이야기한 LG 외국인 투수 케시 켈리는 “흥미진진한 PO라고 생각한다. 4위 NC가 쪽쪽 올라오고 있고, KT는 2021년 KS 우승을 차지한 팀이다. 어느 팀이 올라오든 우리에게 어려운 상대지만 좋은 경기를 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켈리는 상대 선수들의 플레이를 유심히 지켜보며 KS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경기를 보



지난 10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두산과 LG의 경기 종료 후 진행된 우승 트로피 전달식에서 염경엽 감독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며 선수들의 성향과 타자들의 타격, 투수들의 투구 등을 계속 봤다. 새로운 정보들을 경기에

활용하려 한다”고 했다.

뉴스

우승 단장 이어 감독과도 결별…SSG, SK ‘색깔 지우기’ 본격화

SK 출신 코치진도 대거 물갈이

창단 첫 우승에 앞장선 단장에 이어 감독과도 결별하면서 SSG 랜더스의 'SK 와이번스 색깔 지우기'가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SG는 지난달 31일 김원형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11월 SK 지휘봉을 잡은 김 전 감독은 2022년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끈 뒤 3년, 총액 22억원에 재계약했다. 그러나 SSG는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은 김 전 감독을 전직 결정했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달성한 SSG는 올 시즌 초반 LG 트윈스와 2강 구도를 형성하며 '디펜딩 챔피언'의 자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후반기를 더 타 모두 극심한 부진에 빠졌고 한때 6위까지 추락했다.

시즌 막판 뒷심을 발휘해 정규시즌 3위를 차지하고 준플레이오프(준PO·5전3선승제)에 직행했으나 NC 다이노스에 무기력하게 3연패를 당하며 가을야구 무대에서 조기 퇴장했다.

SSG 구단은 김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성적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용 SSG 단장은 전날 “세대교체와 변화, 혁신을

이끌 리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세대교체’를 명분을 내세웠지만 SSG가 SK 색깔을 본격적으로 지워나가는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2021년 1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던 야구단을 1352억8000만원에 인수했다.

그해 정규시즌 개막을 약 2개월 앞두고 인수 작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신세계그룹은 선수단, 프런트를 100% 고용 승계했다. 창단 이후 2년 동안 SK 야구단을 구성했던 이들에게 구단 운영을 그대로 맡겼다.

하지만 변화가 감지됐다. 이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SSG의 창단 첫 통합 우승에 크게 기여한 류 전 단장의 자진 사퇴였다.

류 전 단장은 SK 야구단 프런트의 핵심이었다. SK가 창단한 다음 해인 2001년 SK로 이직한 뒤 20년 넘게 한 팀에만 몸담았다. 마케팅 팀 기획파트장, 홍보 팀장, 육성 팀장, 전략기획 팀장, 데이터분석 그룹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친 뒤 프런트 수장 자리까지 올랐다.

지난해 통합 우승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류 전 단장의 사퇴는 이례적이었다.



시즌 중 야구단 운영과 관련이 없는 구단주의 최측근이 구단의 의사 결정과 인선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류 전 단장이 구단 내부 문제로 강제 퇴임하게 됐다

것이 지배적인 시선이었다.

여기에 SK 왕조 시절의 주축 투수로 활약하고 사령탑에 올랐던 김 전 감독이 경질되면서 SK의 색깔은 더 얼어졌다.

공교롭게도 최근 SK 출신 코치들도 대거 팀을 떠났다.

SK 왕조 시절을 이끌었던 채병용 코치가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고 이진영 코치도 팀을 떠나게 된 상황이다. 정경배, 김민재 코치는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로, 조웅천 코치와 정상호 코치는 두산 베어스와 롯데로 각각 이적했다.

‘칼바람’ 수준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SSG가 무리하게 SK 색깔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뉴스

“FA 류현진, 1년 800만 달러 계약” MLB 전직 단장 전망

메이저리그(MLB)에서 프리에이전트(FA) 신분이 된 류현진(36)이 1년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MLB 단장 출신 칼럼니스트인 짐 보우덴은 1일(한국시간) 디애슬레틱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FA 상위 40인을 꼽고, 행선지와 몸값에 대한 예상을 내놨다.

보우덴은 류현진을 35위로 평가하면서 계약기간 1년, 옵션을 포함한 연봉 800만달러(약 109억원) 수준의 계약을 맺을 것으로 내다봤

다.

적지 않은 나이와 팔꿈치 수술 이력, 저하된 구속 등을 고려한 평가다.

예상 행선지로는 이전 소속팀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미네소타 트윈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언급했다.

보우덴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토미존 서지리)을 받고 올해 8월 복귀한 류현진은 11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9경기에서 3실점 이하를 허용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며 “6경기

에서는 5이닝 이상을 던졌고, 한 차례 6이닝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 3.46, 이닝당출루허용(WHIP) 1.288을 기록했다. 직구 구속은 시속 87~89마일(약 140~143km)이었고, 체인업 피안타율은 0.276, 컷 패스트볼 피안타율은 0.238이었다”고 소개했다.

또 “류현진은 2024년 나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테지만 일단은 1년 계약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흥민·김민재, 외신 선정 EPL·분데스 ‘10월의 팀’

한국 축구 대표팀의 핵심 자원이 공격수 손흥민(토트넘)과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외신이 선정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10월 이달의 팀’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 리그에서 10월 가장 우수한 경기력을 보인 선수 11명을 발표했다.

한국 축구 주장 손흥민은 매체 평점 7.68을 받아 EPL의 최전방 자원으로 자리했다. 10월 리그 3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손흥민은 브렌트퍼드의 브라이언 음베우모 에버턴의 드와이트 맥닐과 함께 톱스리를 구축했다.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와 함께 이름

을 올렸다.

김민재는 분데스리가의 베스트일레븐에 뽑혔다. 평점 7.49를 받아 프라이부르크의 마티아스 긴터와 중앙 수비수로 배치됐으며, 레버쿠젠의 좌우 측면 수비수인 알렉스 그리말도, 제리미 프리폰카와 함께 포백을 구성했다.

김민재는 10월 뮌헨이 소화한 정규리그 3경기를 모두 풀타임 소화, 단 1골만 실점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뽐낸 덕에 10월 이달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뮌헨 소속으로는 킨슬리 코망, 리로이 자네가 좌우 측면 날개로 베스트일레븐에 선정됐다.

또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활약했다가 이번 시즌부터 김민재와 한솥밥을 먹는 해리 케인은 레버쿠젠의 빅터 보니페이스와 투톱을 이뤘다.

뉴스